

# COMIBAM 보고서

## 백운영 미주 대표

저는 지난 2월에 이준성 선교사 (멕시코 후아레스 신학교)와 김우진 선교사 (GP 멕시코)의 초청으로 COMIBAM 25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회에서 미래에 GP 선교회에게 열릴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진행 상황과 또 협약에 관하여 GP 회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 1. 중남미 선교의 획기적인 발전

오래전 제가 캘리포니아 Fuller 신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중남미 교회들이 주도해서 선교 대회가 처음 열린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이 고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87년 브라질 쌍파울로에서 중남미 교회들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중론으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서 중남미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선교 지도자인 Luis Bush 목사님은 강력한 메세지로 중남미 교회가 가진 잠재력을 깨우쳤고 선교 학자인 Samuel Escobar, Rene Padilla 는 '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중남미 교회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에 방향을 같이하자는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중남미 교회는 꾸준히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을 했고 매 10년마다 한 번씩 여러 나라를 돌면서 COMIBAM 선교 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아를 거쳐 선교 열기가 중남미 교회들에게 서서히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파나마에서 제 5차 대회가 열리면서 총 1,7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복음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남미 교회의 선교가 성숙기로 들어섰다는 확증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된것입니다.

### 2. 한국 선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료를 세계 선교가 공유할수 있는것

이번 대회에서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세계 모든 선교단체에서 한국교회가 소유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선교적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GN TV, 두란노 서원과 그 외에 한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성경 자료들은 한국어로만 되어있어서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AI를 허락하시고 빠른 번역과 또한 Chat GPT를

활용하여 모든 언어권에게 가장 필요한 동영상, 그림자료까지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자료들은 서구 교회를 능가할 정도로 수준 높은 자원입니다. 그것을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내어놓고 각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알맞도록 수정이 가능하게 하신것입니다. 21 세기 선교 중앙 무대에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다른 민족 교회들이 선교하도록 겸손하게 자신의것을 다 내어놓는 한국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선교가 사람을 세우고 일군에 집중하는 선교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협력의 시대에 들어서고 나눔이 일상이 된 세계 선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 **3. 중남미 지역 교회들의 선교적인 네트워크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여하는 일**

이번 대회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대회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중남미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후아레스 신학교를 섬기시는 이준성 선교사님은 라틴아메리카 교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한국 교회와 중남미 교회의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셔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선교 지도자들과 한국에서 KWMA 사무총장, 온누리 교회 선교담당 목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중남미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교제와 비전공유 및 미래 협력을 다양하게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만들어 나가면서 세계 교회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진행될 협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로, 올해 9 월에 GP 선교회의 말레이시아 국제 훈련원에서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파송될 중남미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탁 훈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통해 이들을 훈련시켜 동남아 현지에 잘 정착할수 있도록 공동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4. GP 선교가 중남미 선교적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일**

중남미 선교사 후보생들중에 미래에 동남아에서 사역할 사람들은 생소하고 멀리 떨어진 동남아 지역에서 미리 훈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채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11 월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교회 주도로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중남미 출신 선교사들이 다 모여 좋은 만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앞으로 동남아에 진출할 중남미 출신 선교사 후보생들을 현지에서 훈련해야 할 필요와 그 부분을 채워줄 단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 년간 말레이시아에 국제 훈련원을 운영중인 GP 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오는 9 월에 국제 훈련원에서 스페인어와 영어로 훈련을 진행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장소와 훈련 환경은 GP 가 내어주고 프로그램과 진행은 스페인어 권에서 감당 할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GP 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협력이 더 많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